

환경

방사능 한달만에 미검출... 이젠 안전?

정부에선 "광주 등 전국 요오드·세슘 농도 줄어 안심"

환경단체선 "체르노빌의 10% 수준... 선부른 단정 말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여파로 광주지역 공기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된 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대기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출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시도민들의 방사능 공포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이하 KINS)은 최근 방사성 물질 농도가 줄어들거나 검출되지 않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KINS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광주 지역 공기를 모아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Cs-134)이 나오지 않았다 고 밝혔다.

KINS는 최근 자주 내린 비가 방사성 물질을 씻어 내린데다 일본 원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철호 KINS 원장은 최근 대기 중 방사성 물질 농도 추이와 관련해 "후쿠시마에서 최근 대기 중으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많지 않아 우리나라 대기에서도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지역에서 한달(3월 24일~4월 24일) 동안 대기 먼지를 채취해

분석한 방사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사성 요오드가 1.29 Bq/m³로 가장 높았고, 지난 6일 세슘 Cs-

137이 0.417Bq/m³, Cs-134이 0.411Bq/m³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가장 높게 측정된 요오드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으로 계산하면 0.000124mSv로, X-선 촬영 때 받는 방사선량(약 0.1mSv)의 1000분의 1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KINS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일본 내에서 원전사고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한반도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실제로 KINS가 발표한 '일본 지진 관련 후쿠시마원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5일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은 매일 154 TBq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했으며, 지금까지 방출된 방사성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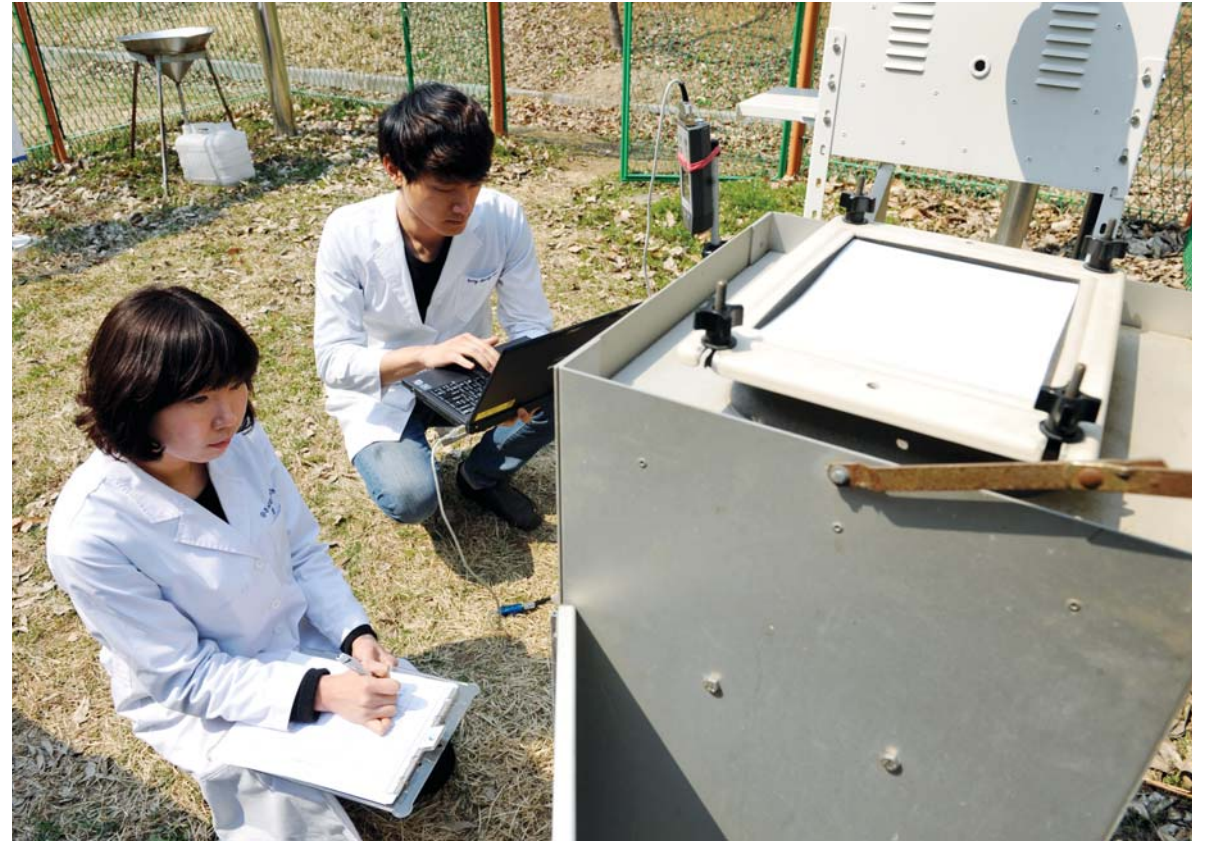
질 총합은 37만~63만 TBq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방출된 총량 520만 TBq의 약 10%에 이른다.

또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에 2500km 떨어진 영국 서부지역까지 방사능 낙진이 날아갔으며, 플루토늄 100kg을 밀봉한 체르노빌 발전소 콘크리트 벽면에 균열이 생겨 현재까지도 방사능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15~30년 후에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상은 팀장은 "현재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는 의미"라며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예측과 분석, 신속한 경보체계 발동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하고, 지금처럼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처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방사능측정소, 세슘·요오드 24시간 측정

사서 핵종 채집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 직원들이 24시간 동안 공기 중에 떠도는 세슘이나 요오드 등 인공 방사성 핵종 채집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전사고, 핵무기만큼 심각하게 다뤄야"

■潘崇장 체르노빌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을 맞아 "핵안전은 핵무기만큼 심각한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총장은 26일 인터내셔널헤럴드 트리뷴(IHT)에 기고한 체르노빌 참관기에서 "며칠전 체르노빌을 방문했다. 아직도 원전 인근 프리파티는 죽음과 침묵의 도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전 사고는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 위협을 줄 뿐 아니라 농업생산, 무역, 지구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혼

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체르노빌에 대한 기억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앞으로 핵무기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핵안전 문제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핵 안전사고에 대비해 새로운

핵시설의 설계, 건설, 운용, 해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반 총장은 덧붙였다.

또 체르노빌이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발을 막고 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수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기문 총장 제안 핵안전 5대 수칙

첫째	현행 핵안전 규정을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제원자력기구(AEA)의 핵안전 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후 변화로 기상 이변이 갈수록 늘는 상황에서 자연 재해와 핵안전 간의 연계고리에 보다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핵에너지의 비분류분석에서 재난 대비 및 예방, 유사시 수송 비용까지 다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섯째	핵 안전과 핵 인본 사이에 보다 강한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

광주 약수터물 안심하고 드세요

중머리재 등 5곳 검사... 요오드·세슘 검출 안돼

광주 지역 약수터에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마시는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

발사태 이후 약수터에도 방사능 물질이 유입됐을 수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 13일 7면)에 따라 지난 13일 지역의 약수터 물을 채취해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

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오창센터는 25일 무등산 중머리재와 너덜길 약수터, 동구 화산 약수터, 남구 대각사 약수터, 광산 구 용진 약수터 등 5곳에서 채취한 약수터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모두 '불검출'됐다고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약수터의 물은 음용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현재 광주 지역 관리대상 약수터는 동구 1곳, 남구 1곳, 광산 2곳, 무등산 10곳 등 모두 14곳이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광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에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제외돼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日 원전, 3·4호기 오염수도 심각

터빈건물·배관용 터널, 수위 20cm·세슘농도 250배 상승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고농도 오염수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사이 3호기와 4호기의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됐다.

26일 NHK방송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와 4호기에서도 터

빈 건물과 배관용 터널 등에 고여있는 고농도 오염수의 수위와 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3호기의 경우 터빈 건물 지하에 있는 오염수의 수위가 1m10cm로 3일전보다 10cm 높아졌다. 4호기도 터빈 건물 지하의 오염수 수위가 1m15cm로

10일전에 비해 20cm 상승했다.

특히 4호기 터빈 건물 지하에 있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지난 21일 조사 결과 1개월 전에 비해 세슘 134와 세슘137의 농도가 모두 약 250배 높아졌고, 요오드131의 농도도 12배 상승했다.

도쿄전력은 3호기의 원자로와 사용후 연료 냉각을 위해 주입하고 있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3호기와 4호기

터빈 건물 지하와 배관용 터널의 오염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방사성 물질 농도가 가장 높은 2호기 터빈 건물 지하와 작업터널에 고여있는 오염수 처리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3호기와 4호기의 오염수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1호기에 2만 500t, 2호기에 2만5000t, 3호기에 2만 2000t 고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오염수 처리가 벽에 부닥치면서 도쿄전력은 원전 냉각기능 정상화를 위한 작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르노빌 원전 참사 25년... 방사능 공포는 여전

2015년까지 철제방호벽

26일은 20세기 최악의 사고로 일컬어지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참사가 일어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6년 당시 가동한 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은 원전 4호기가 조차

실수로 순식간에 폭발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이 되려 원자로의 핵분열을 가속화시켜 폭발로 이어졌다. 참사 피해 규모로 7000여 명 사망, 70만 명 치료라는 재앙이 닥쳤다.

사고 8개월 만에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플루토늄 100kg

을 콘크리트로 밀봉했으나 균열이 생겨 국제 사회의 원자로 2015년까지 철제 방호벽을 덧씌울 계획이다. 사고 발생 25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인근 지역의 평소 방사선량 수치는 여전히 정상치의 20배에 달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1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2관	내이름은 칸 (12세)
3관	제인에어 (12세)
4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5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6관	더 라이트: 악마는있다 (15세)
7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제)/분노의 질주 (15세)
8관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15세)
9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10관	한나 (15세)/나는 아바다 (18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최고급관
2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3관	한나 (15세)/마세티 (18세)
4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5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6관	제인에어 (12세)
7관	더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8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9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2관	제인에어 (12세)
3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4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제)
5관	나는 아바다 (18세)
6관	한나 (15세)
7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8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